

# 제도권 금융문턱 낮춰 '포용'... 소상공인 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개점 1년... 금융 취약계층 종합금융센터 자리매김

### 저신용자 등 600명에 포용대출...마케팅·세무 무료컨설팅 이용객 절반이 신용등급 상승...제1금융권 거래 가능해져

“목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눈앞이 캄캄했어요. 포용금융센터를 찾아 대출을 60~70% 올릴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추천받아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점 1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 포용금융센터가 금융 취약계층이 제기를 돕는 종합상담센터로 자리잡고 있다.

1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포용금융센터가 포용금융특별대출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지역 금융 취약계층은 개점 1년 만에 600명을 넘겼다.

지난해 11월20일 광주은행은 1968년 창립 당시 본점으로 쓰였던 충장로5가 자리에 포용금융센터 문을 열었다.

포용금융센터 대상 고객은 지역 소상공인과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이다.

전문 상담가를 포함 7명의 직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 오전 9시~정오) 고객을 맞는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출장 금융서비스를 하고 예약상담제로 운영한다.

포용금융센터의 업무는 크게 포용금융특별대출로 대표되는 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 교육 등으로 나뉜다.

이곳은 개점 1년 만에 600여 명에 포용금융특별대출 등을 통해 14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280명의 소상공인에게 마케팅·세무·상권분석 등 무

료 경영컨설팅을 받아왔다.

포용금융센터의 맞춤형 금융상담은 고객 신용등급이 오르는 성과를 낳았다.

광주은행이 센터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218명이 자신의 신용등급보다 최고 4등급까지 신용도를 올렸다.

센터는 2금융권이나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 이용한 고객을 1금융권으로 포용하고자 신용관리서비스 CMS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체 등으로 옮기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1금융권과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자영업자의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은 광주 22.4%·전남 22.9%로, 모두 전국 평균(20.8%)보다 높다. 또한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해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기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은행은 그동안 광주시 동구와 광산구,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광주시상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어왔다. 협약을 통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자금지원 및 전문 경영컨설팅, 집합교육 등을 받게 됐다.



정일선(가운데)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장과 직원들이 18일 개점 1주년을 맞아 동구 충장로5가에 위치한 센터 안에서 기념물을 들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포용금융센터가 문을 연 지난해 11월에는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가치 추구를 내건 역점사업 가운데 포용금융센터 개점을 첫 번째로 추진했다.

그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금융이 바로 포용금융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고객들이 신용등급 상승으로 1금융권과의 거래가 가능하게 될

으로써 포용금융센터를 통해 운영자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진심을 다하는 금융 처방으로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길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광주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5.64 (+6.49)
↑ 코스닥	851.74 (+12.27)
↓ 금리(국고채 3년)	0.949 (-0.011)
↓ 환율(USD)	1103.80 (-2.80)

### 광주신보 '소상공인협의회'

광주신보보증재단은 지난 17일 '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증 지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 10여 명은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태풍·장마로 인한 재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증가했다”며 “월가 폭등, 환율 변동 등 국내외 상황들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이날 여러 상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진 때 정전 복구 훈련 한전, 여수산단서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18일 여수국가산단에서 정전에 대비한 모의 종합 훈련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에서는 전남 지진으로 인한 대정전을 가정하고 진행됐다. 전력분야 재난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장애가 발생하고,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전력공급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마련된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지침)’에 기반해 진행됐다. 대정전 복구 훈련과 함께 같은 주제로 토론도 병행했다.

또 긴급통신지원 등 분사·사업소·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대규모 정전 때 상황전파, 이재민 구호지원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 한국광산업진흥회 27일까지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오는 27일까지 '2020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광융합산업 기업의 수출 활로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주최하고 진흥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기존 대면방식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된다.

온라인 공식 플랫폼(www.photonicskorea.org)을 통해 해외바이어와 기업 간 상담대상 검색, 상담신청 등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전략적인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기술·우수제품과 광융합 분야별 공동관, 라이더 상용화 기술지원, 광융합 제품 글로벌 보급 로드쇼, 광융합 육성지원 기관 공동관 등 총 9개의 공동관으로 구성되며, 광융합 기업 120개사가 참여한

다. 신기술·우수제품 개발업체로 선정된 8개 기업이 초소형·관통형 항공장애표시등과 분광학 기반의 성분 분석 기술 등 다양한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진흥회는 최근 3년간 광융합분야 실질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 데이터베이스(31개국 2024명)를 상시 관리하고 해외 유망 전시회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8개국 150명의 해외바이어의 참여를 이끌 어냈다.

이밖에 관련업체 종사자와 광융합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PLC 및 LiDAR 산업 발전 전략 기술교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개발과 시장 동향 등 최신 실무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세미나는 행사기간 중 공식 플랫폼에서 등록 후 시청할 수 있다.

조용진 진흥회 부회장은 “국내 광융합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후속 협상과 수출계약 성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가시밭길'

### 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법적 대응 개시

대한항공이 시대적 사명을 안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밝혔지만, 구조조정·독과점 우려와 특허 논란에 부딪히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PHF) KCGI는 18일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CGI는 “지난 16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조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긴급히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 측과 경영권 확보를 두고 대립해왔다.

현재 KCGI 등 주주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1%,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41.4% 수준으로, 주주연합 측이 우세하다.

산은이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 10.66%의 주요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기존 주주인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약 42%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약 37%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은은 한진칼을 통한 자금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32차 한미경제회의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통합 이후) 가격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독과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절대로 고객 편의(저하), 가격 인상 이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아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